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47억’

⌘ 송지혜 기자 | Ⓞ 승인 2013.12.17 08:04 | □ 호수 326

지난 대선 때 모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간데없고, 47억원 가까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차가운 겨울, 평택공장의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만났다.

12월4일 오전 6시30분, 초겨울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어둠은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인근을 가득 채웠다. 공장 정문 앞 컨테이너로 만든 상가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있다. 이창근 노조 기획실장이 간신히 몸을 추스르며 한마디 내뱉었다. “아... 추워.” 전기장판과 침낭에 의지해 4시간여 잠을 청했다. 전날 밤 10시30분~새벽 2시30분 김밥을 만들었다. 쇧덩이를 만지던 조합원 10여 명이 밥을 짓고 김밥을 말았다. 잠시 눈을 붙였다 뜨니, 출근 투쟁에 나설 시간이다.

그는 스티로폼 상자 네 군데에 나눠 담긴 김밥 300개를 공장 정문 앞에 펼쳤다. 나머지 김밥 300개는 남문, 후문, 4초소, 기숙사 앞으로 각각 흩어졌다. “공장 밖 해고자들이 공장 안 노동자와 소통하기 위해 김밥을 말았다. 김밥은 ‘함께 살자’는 의미다”라고 이창근 실장은 말했다.

김밥 한 줄 1000원, ‘마수걸이’는 생각보다 늦었다. 좌판을 펼친 지 20여 분 만에 5개가 팔렸다. 김득중 노조 지부장은 출근하는 노동자를 향해 연방 “수고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몇몇 사람에게는 어깨를 토닥이며 악수를 건넸다. ‘산 자(비정리해고자)’가 ‘적’으로만 보이던 2009년 파업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시선이다. 이날 용산참사 유가족 유영숙씨와 전재숙씨가 새벽 기차를 타고 와 출근 투쟁에 함께했다.



©시사IN 신선영12월3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다.



©시사IN 신선영출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김밥을 팔고 있다.



©시사IN 신선영12월3일 김정욱 노조 사무국장(등 돌린 이)이 퇴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밥 판매에도 날개가 돋았다. 오전 8시 김밥이 동났다. 그에 앞서 4초소와 남문에서도 '완판'했다. 서울 대한문 앞 합동분향소를 19개월 만에 공장 앞으로 옮기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김밥을 팔고 있다. 11월2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오픈' 첫날, 95만원어치가 팔렸다. 5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모인 돈은 두 배다.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 한꺼번에 10개씩 구매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죽은 자(해고자)'의 손을 잡는 공장 안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고자들은 입을 모았다.

'가압류' 상태에서 '소송 폭탄' 줄이어

그래서인지 이들이 '산 자'에게 나눠준 유인물의 글귀가 더 암담해 보였다.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47억.' 지난 11월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공장 점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와 가담자 140명에게 쌍용차 측이 청구한 150억원 중 33억1140만원을, 경찰이 청구한 14억6168만원 중 13억7000여 만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쌍용차 측과 경찰은 조합원의 임금·퇴직금·부동산 28억9000만원을 가압류로 묶어둔 상태다. 가압류 대상자에는 현재 수입이 없는 해고자와 무급휴직 후 복직자 26명, 희망퇴직자 15명이 포함돼 있다. 설상가상 2011년 쌍용자동차의 보험 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파업 사태 당시 발생한 화재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110억원가량의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 폭탄' '생활고 폭탄'에 이어 '소송 폭탄'이 쌍용차 사람들 앞에 떨어지고 있다.



©시사IN 신선영지난 3월에 복직한 김석만씨.

12월3일 오후 5시30분 '산 자' 김석만씨(45)는 퇴근길이었다. 해고자 가족들이 보기 괴로울까봐 출퇴근 10여 분 외에는 쌍용차 작업복을 입지 않는다.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김씨는 복직자다. 77일간 옥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정직 3개월'에 이어 또 다시 정직 3개월, 1개월 휴업 연장... 문자는 계속 왔다. 4년이 흐른 뒤 지난 3월, 무급휴직자 450여 명과 함께 복직했다.

공장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파업에 가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갈렸다. 지난 20년 동안 자재를 관리했던 그는 '뽕뽕이'를 돌고 있다. 혁신팀이라는 새 부서에 속했다. 사고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운다. 조립1 라인, 의장 라인, 차체 라인까지 벌써 3번째 라인 변경이다.

11월 월급명세서에는 130만원이 찍혔다. '법정 채무금'으로 50% 공제된 액수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회사 측은 김씨 등 지난 3월 복직한 이들 26명에게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임금 50%를 가압류했다. 김씨는 "차라리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다시는 조합원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마 전기세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낼 수 있다"라며 그는 다행이라고 했다. 아내도 맞벌이를 한다.

김씨는 오히려 정직당한 기간에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었다고 했다. 정직된 동안 그는 농협 물류창고, 인력사무소를 돌며 막노동을 했다. '노가다'였지만 매달 200만원을 손에 쥐었다. 그는 "차라리 밖에 있을 때가 낫다"라고 중얼거렸다.

두 아이와 함께 먹을 저녁상을 차리는 일은 김씨가 빼놓지 않고 챙긴다. 옥쇄 파업을 하며 떨어져 산데다 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일을 한 탓에 김씨의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로 인한 마음 생채기가 생겼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일기장에 '아빠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적었다. 복직한 뒤 고

작 100만원을 손에 쥐어도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고 퇴근하자마자 직접 밥상을 차리는 이유다.



©시사IN 신선영해고자 조재영씨는 '대리운전'을 한다.

정리해고자 조재영씨(48)는 저녁 7시~새벽 2시 대리운전을 한다. 올해 3월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다. 시작하면서 골치를 앓았다. 평택 지리를 잘 모르는 터라, 고객을 데려다주고 나면 돌아올 길이 막막했다. 요령을 터득한 게 2인1조로 움직이기다. 따라오는 차를 구해 함께 움직인다. 하루 3만원을 손에 쥐는데 여기서 기름값, 대리운전 회사 수수료 건당 20%, 다달이 차량보험료 6만5000원과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1만5000원을 댈다. 저녁 시간에 기운 없이 앉아 있기 싫어서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시작했다.

그는 정비사다. 1988년 평택공장에 입사하고 2년 뒤 서울 구로정비사업소로 옮겼다. 집과 구로사업장만 오가던 그는 2009년 파업을 하면서 평택에 발을 들였다. 두 다리 펴고 잘 곳조차 없는 이곳을 아직까지 떠나지 못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바쁘게 지내는데 비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평택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월급으로 갚던 주택 대출이자도 고스란히 빚이 됐다. 퇴직금 50%는 회사 측이 낸 가압류에 묶였다. 나머지 퇴직금은 생계비로 줄줄이 썼다. 여기저기서 차압이 들어왔다. 가족이 살던 집마저 정리했다. 이 돈으로 8000만원 빚을 갚고도 자동차세·의료보험비·국민연금 등은 모조리 밀렸다. 결국 파업한 그해 파산했다.

해고 직후 1년간은 보험회사에 다녔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평택에서 돈벌이가 못 됐다. 지인이 인수한 정비사업소에서 1년간 일하기도 했다. 희망퇴직자, 무급자, 해고자 10여 명을 소개해 지인을 도왔다.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었다. 1년 뒤 사업소가 자리를 잡자 그는 또다시 내버려졌다. 정비사로서 두 번째 상처다. 그래서인지 쌍용차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공구를 손에 쥐 생각 없다.

장성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직업군인을 선택했다. 대학 등록금을 댈 여력이 없었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아이의 선택에 미안했다. 그래도 조씨는 열심히만 하면 해고당할 일 없는 군인이 차라리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식당일을 전전한다. 매주 토요일 집에 가는 날이면 아내의 부항 뜬 자국이, 조씨 본인이 시킨 고생의 흔적 같다. 손해배상 소송에 졌다고 전했을 때 아내는 “차라리 희망퇴직하고 위로금이라도 받을 걸 그랬다”라고 말했다. 늘 웃고 넘기던 조씨도 이번 판결을 대하고선 마음이 복잡했다. “사법부가 해고자들을 상대로 압류를 집행할 권한을 줬다. 돈이 있으면 주고 말지, 돈이 어딴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아픔이 생길 거야.” 동료들이 김밥을 말던 새벽 2시까지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인근 아파트 상가 내 작은 소파에서 혼자 잠을 청했던 조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출근 투쟁에 나와 “김밥 사세요”라고 외쳤다.



©시사IN 신선영파업 이후 구속됐던 양형근씨는 출소 직후 파산신청을 해야 했다.

양형근씨(48)는 77일간의 옥쇄 파업 이후 구속됐다. 주도 세력 명단에 평조합원이던 그가 있었다. 7개월 옥살이를 하고도 회사 측 손해배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2년 일한 그가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0원.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퇴직금이 먼저 가압류되었다. 실업급여조차 한 푼 받지 못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양씨는 처음 알았다. 출소 직후 파산신청을 했다. “이제 싸움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성화를 뿌리치면서 그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현재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통장도 카드도 없다. 얻은 것이라곤 허리디스크와 불편한 다리....” 치과, 외과, 내과가 필요한 그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다. 최근에는 척추 4~5번에 이상이 생겼다. 오랜 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왼쪽 다리가 저린다.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의료보험비가 연체된 사실도 몰랐다. 노조 집행부 활동비로 가까스로 연체된 의료보험비만 내고 있다.

경찰이 낸 손해배상 명단에서 그는 빠졌지만 메리츠화재가 낸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었다. “진실이 밝혀져야지.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에 이은 정리해고로 동료와 가족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냈다. 무려 스물

네 명이다. 더 이상 잃을 수 없으니, 어떤 폭탄이 와도 자리를 지켜야지.”



©시사IN 신선영고공 농성을 했던 비정규직 해고자 복기성씨.

아기 젖 냄새와 장난감, 인형이 놓인 비정규직 해고자 복기성씨(36)의 집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다. 집의 80%는 빚이다. 2008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몇 달치 임금을 떼인 채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형식적이던 휴직은 업체 폐업 절차를 밟다가 해고로 바뀌었다. 당장 생활비가 없었다. 집을 담보로 1500만원, 1950만원씩 네 번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쫓겨날 수 없어서’ 밥을 굶어도 대출이자 45만원씩은 꾸역꾸역 갚았다. 관리비, 공과금, 의료보험 같은 건 아예 손을 못 쓴다.

“배상 판결은 죽음의 문 앞에 데려다놓은 꼴”

해고가 생활고 폭탄의 포문을 열었다면 “이번 배상 판결은 죽음의 문 앞에 데려다놓은 꼴이다”라고 복씨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6살·8살 두 아이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개자 구실을 해야 할 정부가 회사 측과 노조 측의 협상을 유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150억원짜리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희망이 없다.” 복씨의 눈가가 젖었다.

2003년 1700명이던 비정규직은 2008년 해고 당시 340명으로 줄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에 불과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그가 일한 2003~2008년, 매년 연봉 1800만~20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특근과 잔업을 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손에 쥐는 돈이었다. 11월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복기성씨 등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해고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했지만, 실제 쌍용차의 지시와 관리를 받은 불법 파견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가 효력이 없어서 복직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의 사례처럼 재판부의 판결을 회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이맘때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과 함께 30m 철탑에 올랐다. 건강 악화로 고공 농성은 171일 만에 중단됐다. 한때 190까지 치솟던 혈압은 약으로 잡았다. 지금도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다. 8~11월에는 서울 대한문에서 생활했다. 2009년 파업 때 첫돌을 맞이한 둘째 아이가 여섯 살이 되는 동안 함께 지낸 기억이 거의 없다. 복씨의 아내가 지난주 김밥을 썰다 손을 다쳐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두 아이를 챙기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아빠 복씨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이들과 정들까 봐 두렵다.” 두 아이가 ‘아빠가 매일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미안해서다. 아내가 퇴원하면 그는 다시 공장 앞으로, 대한문으로, 전국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송지혜 기자 song@sisain.co.kr